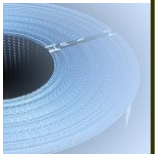


2009.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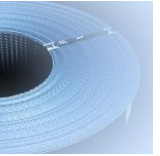
POSRI CEO REPORT

석탄선물 신규상장에 따른 국내산업의 영향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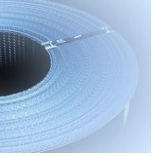
경영연구센터
정재호, 최현우

Executive Summary



< 석탄선물 신규상장에 따른 국내산업의 영향 및 시사점 >

- **지난 2008년 12월 5일 국제거래소(ICE)는 석탄선물 계약을 상장했으며, 호주 증권거래소(ASX)도 2009년 3월까지 석탄선물을 상장할 계획**
 - 세계 원유가격의 지표가 되는 브렌트유의 선물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국제거래소에서 세계 최초로 아시아 시장의 석탄선물 계약을 상장하였고, 세계 10위의 호주 증권거래소에서도 곧 상장할 예정
 - 선물시장의 도입은 현물시장의 가격체제나 거래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현 석탄시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가격변동위험이 크고, 신규 석탄선물은 아시아의 현물시장 물량이 풍부하여 성공 가능성이 클 전망**
 - 최근 석탄시장의 변동성이 커져 헤지수요와 투기수요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가격변동위험을 보이고 있으며,
 - 현물시장의 규모가 전세계 물동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시장의 석탄을 대상으로 하여 충분한 거래 물량 확보가 가능하고,
 - 시장 균형을 인위적으로 방해할 정부의 개입이나 가격조작 가능성이 낮아 선물시장의 성공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
- **석탄선물 거래 상장의 성공은 기존의 가격결정방식이나 계약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
 - 장기공급계약 유인 감소: 가격 예측력이 높아져 Spot 시장 구매비중이 증가하고, 공급가액도 상품 인도시점의 선물가격으로 결정될 가능성
 - 광산개발 프로젝트 증가: 선물시장을 통해 자금 및 수요처 확보가 용이해져 광산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할 전망
- **수요산업의 가격협상력 제고와 금융시장을 통한 금융수익 제고 및 적극적 자원개발 정책의 실행이 시급**
 - 석탄구매가격 협상력 제고를 위해 석탄전문가를 내부적으로 양성하고, 선물거래 참여를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석탄자주개발을 향상을 위해 자원정책 추진 시, 석탄선물 거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이전인 향후 2년~3년 내에 추진 실행 필요



목 차

I. 머리말	1
II. 세계 석탄선물 거래 시장	3
III. 석탄선물의 성공 가능성	4
IV. 석탄선물 상장 성공의 의미	10
V.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12

I. 머리말

□ 지난 12월 5일 브랜트유가 선물거래되고 있는 국제거래소(ICE)에서 아시아 지역 최초로 석탄 선물거래 상장

- 국제거래소(ICE)는 브랜트유의 선물거래를 통해 세계적인 유가 벤치마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유럽에서 거래되는 석탄에 대해 선물을 상장하여 운영 중
- 이번 석탄 선물거래 상장은 아시아 지역에서 거래되는 석탄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선물거래라는데 큰 의미

□ 2009년 상반기에는 세계 Top 10의 증권거래소인 호주 증권거래소(ASX)도 아시아 석탄선물 거래를 상장할 계획

- 세계 10위의 호주 증권거래소(ASX)도 2009년 3월에 아시아 석탄 선물거래 상장을 추진할 예정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입량의 15%를 차지하는 일본의 전력회사와 세계 최대 광산회사인 BHP Billiton과 같은 석탄의 수요 공급기관뿐 아니라 Citigroup, Deutsche Bank와 같은 대형 금융기관도 참여 예정

□ 세계 교역량의 69%를 차지하는 아·태지역의 석탄거래에 대한 선물 상장으로 석탄 교역관행이 변화될 전망

- 세계 석탄공급량 중 아·태지역에서 공급되는 양이 연료탄의 43%, 원료탄의 69%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요량의 65%를 중국 및 미국, 인도가 점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석탄 선물거래가 성공할 경우, 기존의 석탄공급가격 결정방식을 포함한 계약방식이나 구매량 또는 구매시기 등의 거래관행이 변화될 전망
- 계약관행의 변화는 연·원료로 석탄을 사용하는 전력회사나 철강업체의 구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분석이 필요

(참고) 선물시장

☛ **선물시장: 선물계약을 거래하는 시장**

- 선물계약이란, 특정 날짜에 특정 물건을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약성립 시, 바로 물건을 주고 대금을 결제하는 현물계약과는 차이가 있음
-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거래 상대가 없어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물품, 거래시기, 계약실행방법 등을 사전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이 조건에 따라 주문하면 계약이 체결됨
- 선물계약 거래는 옥수수, 원유 등 실물상품거래와 통화, 주가지수와 같은 금융상품 선물거래로 나뉨

☛ **선물시장은 현물시장의 위험을 헤지하는 기능을 제공함**

- 선물계약은 장래에 거래할 가격을 정해 현재에 계약하는 것이므로 장래의 가격을 현재시점에서 알 수 있게 함
- 장래에 필요한 원자재를 재고비용의 부담 없이 현재 결정된 가격으로 확보함으로써 원자재의 가격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원유 1 만 배럴이 1 년 뒤에 필요한데 오늘 원유를 배럴당 80 달러에 구매하면 원유를 사용할 때까지 1 년 동안 원유를 보관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그러나 1 년 뒤에 80 달러에 구매하기로 선물계약을 하면 1 년 뒤 원유가격이 110 달러가 되더라도 80 달러에 원유를 구입할 수 있게 돼 재고비용의 부담 없이 원유가격의 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음

☛ **선물거래가 활성화되면 장기공급계약의 유인이 감소함**

- 선물거래 활성화로 선물시장을 통해 언제든지 원하는 양의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게 되면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장기계약을 통해 가격을 고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감소함
- 공급자 역시 미래 시장가격을 현재시점에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므로 장기공급계약을 통한 수요처 확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됨
- 따라서 선물거래의 활성화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현재의 거래관행의 변화를 검토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됨

II. 세계 석탄 선물 거래시장

□ 현재 상장되어 있는 석탄선물은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 시장가격의 벤치마킹 시스템으로서의 역할 미흡

- 현재 석탄선물이 상장된 거래소는 유럽 에너지거래소(EEX), 뉴욕 상품거래소(NYMEX), 유럽 국제거래소(ICE Europe)로 3개 시장
- 기존 거래소에서 석탄선물은 유럽과 미국 시장의 역내에서 거래되는 석탄을 대상으로 선물거래
- NYMEX 석탄선물의 경우, 2001년 상장 당시 6개월간 거래량이 2,199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2005년 상반기에는 거래량이 없었고, 가격지표만 발표할 정도로 거래량이 매우 미흡

□ 최근 가장 영향력 있는 아시아 지역 석탄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석탄선물 시장 개장 및 상장 추진계획이 발표

- ICE와 ASX의 석탄선물 상장 개요

시장명	ICE (국제거래소)	ASX (호주 증권거래소)
상장일	2008년 12월 5일	2009년 3월 예정
기준가격(지표)	Global Coal NEWC (뉴캐슬 선적 석탄가) Index	뉴캐슬항(호주) 선적 석탄 FOB가격
최소거래단위	5,000 ton	1,000 ton
Tick size	US\$ 50	US\$ 10
청산방식	현금	현금/현물

※ Tick Size: 선물계약에 대한 최소 가격변동분

□ 신규 석탄선물은 국제거래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현물 결제도 가능하여 원재료 재고위험의 헤지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석탄 국제거래물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아·태지역에서 거래되는 호주산 석탄의 수출가격이 기준가격

- ASX 상품의 경우, 현물 인도를 통한 청산(선물계약의 실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발전사업자의 재고물량 확보를 위한 헤지 거래에 활용 유용(ICE의 경우는 현금청산만 허용)
※ 청산: 매매계약 종료를 위해 반대 매매를 하는 것
- BHP Billiton, Rio Tinto 등 주요 석탄공급자와 일본 전력사(J-Power, Chubu 전력, 동경전력 등) 등 수요가 및 금융기관을 주요 참여자로 확보하고 시장을 개설

III. 석탄선물의 성공가능성

- 시장에 상장되는 선물계약이 성공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거래될 확률은 낮은 편으로 상품선물이 상장되었다는 사실보다는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 미국의 경우, 신규 상장된 선물계약 중 40%가 5년 이내에 상장 폐지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상장된 계약의 30%만 성공적으로 거래 중
 - 상장할 선물계약의 성공여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상품의 가격변동성, 현물시장의 규모,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여부 및 상품이 선물거래에 적합한 지에 대한 분석이 필수

가격변동성

- 가격 변동위험이 커지면 위험을 헤지하려는 수요와 변동성으로 인한 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유발

- 현물상품의 가격변동위험이 클수록 헤지 거래와 투기거래를 유인하는 매력이 커져 선물계약 상장 시 성공가능성이 클 전망
 - 미국 거래소에 상장할 때 선물계약이 성공하려면, 가격변동성이 2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에도 가격변동성이 15% 이상이면 성공확률이 높다고 연구 분석
 - 원유의 경우 선물계약이 성공한 계기는 2차 석유파동 당시 가격변동성이 212%에 달해 이를 헤지하기 위한 수요로 인해 성공했다는 분석이 지배적

□ 고유가, 중국 및 인도 등의 신규 수요증가, 석탄 채광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탄 가격의 변동성이 급증

- 과거에는 석유에 비해 석탄의 매장량이 많다는 이유로 연료탄의 경우 1%~15% 수준으로 가격변동폭이 매우 안정적
- 그러나, 최근 유가의 급격한 변동과 중국, 인도의 신규 수요증가로 연료탄의 경우 125%, 원료탄의 경우 250%까지 변동하는 등 가격변동폭이 큼

☞ 석탄은 석유나 가스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변동을 유지했지만, 최근 변동성이 커져 헤지 및 투기 수요증가 전망

▶ 현물시장의 규모와 구조

- 시장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며 특정 수요자나 공급자가 임의로 수요량이나 생산량을 조절하더라도 가격에 영향이 없어야 함

□ 아·태지역에서 거래되는 석탄량은 전세계 수출입 흐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대규모 시장

- 전세계 수출량 8억6,000톤 중 아·태지역에서 수출된 물량은 4억 6,000톤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약 7억 톤 정도 수출할 것으로 전망
- 수입량의 경우 전세계 수입량의 37%를 일본, 한국, 대만이 점유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아·태지역의 석탄수입물량이 6억 톤 정도 거래될 것으로 전망

□ 세계 최대 공급사인 BHP Billiton의 경우도 높은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고, 수요자는 각국에 분산되어 있어 개별 기업의 수급량 조절로 인한 가격 왜곡 가능성은 낮은 상태

- 최대 공급사인 BHP Billiton의 경우 세계 시장지배율이 9.3%이고, 2위업체인 Xstrata도 6.2%로 낮은 시장지배력

- 수요업체는 각국의 발전사 또는 철강사로 다수의 업체가 존재해 개별 업체의 수요 변동이 전세계 수요량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

☞ 기존 석탄 선물시장이 대서양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을 대상으로 한 반면, ASX의 경우 수출 물량의 60%를 차지하는 아·태지역의 거래가격을 선물거래의 기준가격으로 활용

▶ 정부의 시장개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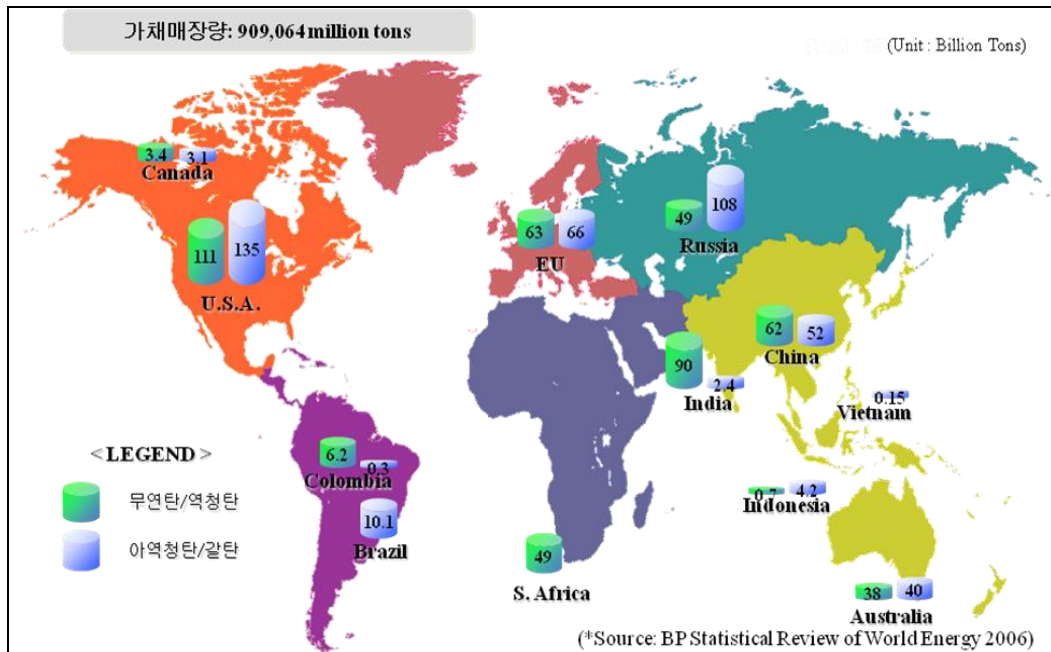
- 정부규제 등으로 시장의 원활한 수급을 방해하는 요인이 없는 상품이어야 함

□ 정치적 문제로 인해 선물계약의 실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선물거래의 성공가능성은 낮아짐

- 정부의 가격 통제나 구매 프로그램도 생산자들이 재고를 유지하거나 헤지할 필요성을 제거하여 선물시장의 성공을 방해
- 1960년대~1970년대 미국의 경우 쌀, 커피, 면화, 버터, 담배, 땅콩, 양파 등의 농산물들은 정부가 소유한 대량의 재고 때문에 실패한 선물시장으로 기록

□ 석탄의 생산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아 원유와 같은 정치적 문제로 인한 수급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적음

- 석탄은 전세계 각 대륙 70여 개 이상 국가에 골고루 분포하여 생산
- 가채 매장량은 9,000억 톤 이상으로 약 120년간 사용할 수 있어 석유나 가스에 비해 안정적 공급이 가능
- 특히 아·태지역의 최대 공급국인 호주와 최대 수요국인 일본, 한국, 대만의 경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수출규제 또는 증권(선물)거래규제 등 시장간섭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



- ☞ 호주, 일본, 대만,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 석탄시장은 석탄의 이동이나 선물거래와 같은 증권거래에 대해 정부개입이 적은 국가로 거래효율성을 저해할 위험 적음

▶ 상품자체의 특성

- 상품이 표준화된 약관에 의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특성, 즉 상품을 표준화하기 위한 동질성 기준과 저장 및 운송가능성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함

- 현물시장의 상품에 대한 품질 및 관행이 표준화가 용이하고, 상품의 저장성이 클 때 선물거래의 성공가능성이 큼

- 세계 최초 상품선물거래였던 흰 새우의 경우 현물시장에서 등급, 계약규칙, 분쟁해결 등에 있어 표준화된 거래관행이 없어 실패
- 1961년 상장된 냉동삼겹살의 경우 수축허용 한도, 저장시간 한도, 저장방법 및 등급 명세 등이 실제관행과 일치하지 않아 1964년까지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함

□ 석탄은 열량, 수분함량, 불순물함량 등을 기준으로 표준화가 용이하며, 저장성이 큰 물체

- ASX의 석탄선물 상품의 경우, 발전용 석탄의 열량 및 불순물함량과 운송 및 보관 관련 비용을 현물시장의 관행에 맞춰 최종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화
- 또한, 저장성이 뛰어나 광산, 화물 터미널 또는 발전소의 석탄 야드 등에 보관이 가능
- ASX와 ICE의 경우 석탄의 열량은 6,000kcal 기준으로 하여 초과하거나 부족한 열량의 비율과 재(Ash)와 황의 포함비중에 따라 할인율을 적용하고 보관 및 운송비용을 가산하여 가격을 결정하도록 표준화

☞ 기존 석탄 선물의 경우 기준 상품대비 0.05%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품을 표준화한 반면, 신규 석탄선물의 경우 최대 4%까지 차이를 인정하는 대신 가격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표준화가 용이

(참고) ASX의 석탄선물 상품가격 산정 방식

▶ 발전용 석탄의 열량 6,000Kcal, 재 함량 13% 이하, 황 함량 0.6 이하로 선물청산일 도래 시 즉시 인도 기준

▪ 열량기준: $(\text{순열량}/6,000) \times \text{최종거래가격}$

▪ 재(Ash)와 황 함량 기준:

재 함량	≤ 13%	≤ 14%	≤ 15%	≤ 16%	≤ 17%	> 17%
할인율	0	1%	2%	3%	4%	등급 외

황 함량	≤ 0.6	≤ 0.7	≤ 0.8	≤ 0.9	≤ 1.0	> 1.0
할인율	0	0.5%	1.0%	1.5%	2.0%	등급 외

▪ 화물 보관 및 운송기준:

- 화물 유치료: US\$1.00/ton/day
- 급송비용: US\$0.50/ton/day

▶ 이해당사자의 반응

- 실제 시장에서 거래에 참여할 이해당사자의 반응이 거래 활성화의 중요한 평가 요인

□ 현재 석탄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헤지 거래의 필요성을 느끼기에 충분할 만큼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음

- 현재 시장의 변동성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헤지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ICE의 석탄선물 거래는 이러한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Commonwealth Strategies의 애널리스트 Lachlan Shaw)
-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의견을 보이던 일본 기업들이 지난 1년간 석탄가격의 큰 변동으로 전력생산 중단을 겪으면서 가격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 참여 시사(ASX의 석탄선물 담당)
- 호주의 BHP Billiton, J-Power와 Chubu 전력과 같은 일본의 전력회사가 ASX의 석탄선물 거래에 참여할 것임을 시사

□ 아시아 석탄 현물시장의 규모, 선물시장의 성공확률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규모로 평가

- 유럽 석탄선물의 부진은 전세계 교역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아시아 시장을 끌어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금번 ICE에 상장된 석탄선물은 5년 이내 가장 유동성이 높은 시장이 될 전망이다(Global Coal analyst)
- 아시아 지역 석탄선물의 개장은 브랜드유가나 WTI유가와 같은 세계적인 'Benchmarking Pricing System'이 생겨나게 될 전망이다(ICE 석탄선물 담당자)
- ASX는 2009년 2월~3월 중 상장할 석탄선물의 연간 거래량을 3억5,000톤 정도로 예상(ASX manager, Anthony Collins)

기존 석탄선물시장과 달리 거래물량이 많고, 거래의 안정성이 높은 반면 최근 들어 중국 및 인도 경제의 성장으로 인한 석탄수요 급증으로 가격변동성이 커져 상장 후 헤지와 투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예상되어 성공 가능성이 큼

IV. 석탄선물 상장 성공의 의미

- 석탄선물의 상장이 성공하면 미래가격의 명확화와 현물 청산제도로 인해 기존 계약관행과 가격 지표에 변화를 주어 석탄의 가격협상방식 등 계약형태의 변화에 영향을 줌

① 가격결정방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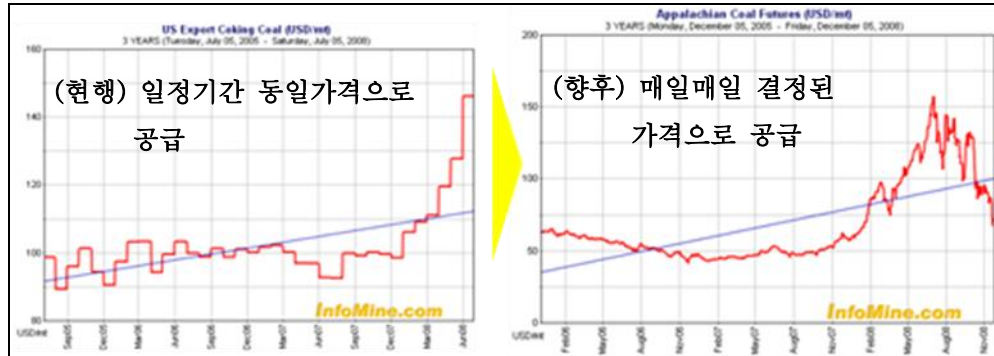
- 원유의 사례를 보면, 계약기간은 장기계약을 유지했으나, 도입물량에 대한 가격결정방식이 변경

석유선물의 등장과 가격결정구조의 변화

주요 사건	가격결정방식	주요 내용
Achnacarry 협약을 통한 공급자 카르텔 형성	Posted Price (1950년대)	· 메이저 석유회사의 개별 수출지역에 대한 회사별 공시가격 설정 · 공급사의 최적 이익 극대화 가격
석유회사와의 협상이 아닌 산유국 독단의 가격 결정	OPEC 공시가격 (1960년대~1980년대 중)	· OPEC의 정부판매가격(GSP) 방식 또는 공식판매가격체제(OSP) · 주로 대정부 또는 민간기업간 장기계약이 주류를 이룸
석유공급과잉으로 장기계약 유인 감소	시장연동가격 (1980년대 후~1990년대)	· 계약기간 단축과 현물가격에 연동되는 가격 결정 · Formula pricing (선적 후 일정기일 후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현물시장의 성장과 가격변동성 확대로 선물시장 도입	석유선물발달 (1990년대 이후)	· NYMEX, IPE, ICE, ROEFEX 등 선물거래소를 중심으로 선물 상장 · 원유 선물가격이 원유도입 시 기준가격 및 석유기업의 유가변동 리스크 헷징 수단으로 활용

- 구매계약 시 석탄가격의 결정은 상품이 인도되는 시점의 선물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될 전망

<상품선물 도입 시 가격형태의 변화>



- 따라서, 과거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격을 협상하여 협상된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지만, 향후 매일매일 선물가격을 통해 현재 시장가격 및 일정시점 이후의 가격이 공시

② 광산 개발 프로젝트 가속화

- 현재 광산개발 프로젝트는 개발자가 수요처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요자와 공동 개발하는 경향 많음
- 그러나, 선물시장에서 미래시점의 가격과 수요량이 결정되면 공급자가 부담할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개발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 광산업자 단독의 개발 프로젝트가 증가할 전망
- 또한, 선물시장에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투자자금이 부족한 광산업자의 경우도 선물거래를 통해 투자자금 확보가 용이해져 광산개발 프로젝트가 선물거래 활성화 이전보다 증가할 전망

③ 가격변동 위험 회피 및 재고 확보를 위해 선물거래 활용

- 가격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식이 장기공급계약 체결에서 선물계약 체결의 형태로 전환될 전망
- 또한, 현물결재를 통해 석탄의 실물확보가 가능하게 되어 소량 구매 등 경영전략상 필요에 따라 석탄 장기공급계약 대신 선물거래를 통한 구입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될 전망

V.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 (수요산업) 가격 결정방식 변화에 따른 구매가격 협상력 제고 위한 역량 확보

- 국내 석탄 수입의 85%를 아·태 지역 국가(호주, 인도네시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금번 석탄선물의 가격은 국내 석탄수입가격의 중요한 Benchmark Price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개별협상 가격이나 Spot 시장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신력 높은 선물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 협상이 가능하게 될 경우, 가격 예측력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
- 따라서, 석탄가격 예측보다는 기준가격 대비 지급해야 하는 프리미엄 산정을 위해 석탄의 품질, 수요량, 인도조건 등을 검토하여 협상할 수 있는 전문역량 확보 필요

□ (금융산업) 석탄선물 시장의 참여를 통한 수익창출

- 석탄선물 거래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를 통한 수익 창출 기회 발생 가능
- 세계 석탄 수입물량의 37%를 차지하는 석탄수입 2위 국가인 한국의 수요 산업 내의 석탄수요 예측 인력 및 노하우와 석탄 물량 관리 역량을 금융분야에 연계하여 석탄선물 거래 전문인력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

□ (R&D 정책) 경제적인 R&D 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석탄 이용 기술로드맵 작성시 연·원료탄 가격 전망이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으로 제시됨으로써 기술개발을 위해 투자될 금액과 원료 절감 효과의 비교가 용이해질 전망
- 따라서, 연·원료탄 사용 기술 또는 응용 프로세스 기술개발의 투자시기 결정시 비용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기술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

□ (자원정책) 유연탄 자주개발을 향상을 위한 개발사업참여의 마지막 기회

- 선물시장을 통해 광산업자가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 광산업자의 유동성 악화로 인한 광산 매물이 줄어, 질 좋고 값싼 매물을 확보하기 어려움
- 또한, 광산 소유자가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도입이 용이해져 광산개발 사업에 대한 기회가 줄고 지분참여의 경쟁상대에 금융기관도 참여하게 되어 높은 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큼
- 따라서, 광산개발사업의 지분참여는 선물시장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 없는 2년~3년 내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연락처: 정재호 (e-mail: gun@posri.re.kr)

최현우 (e-mail: hwchoi@posri.re.kr)

☞ 이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포스코경영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